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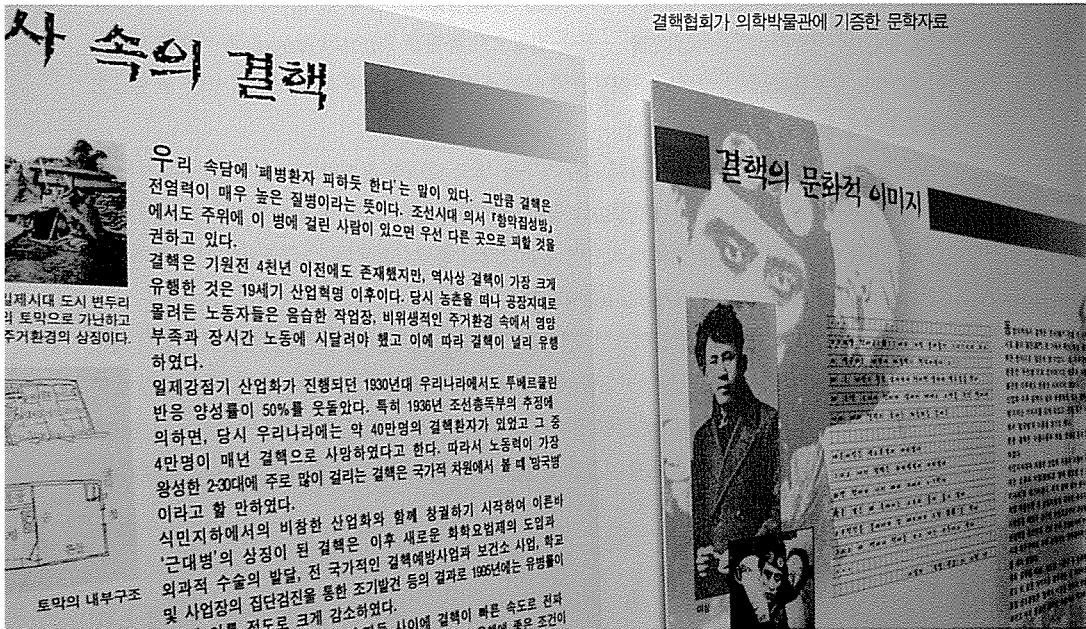
의학 관련 귀중 자료 전시 결핵전시관도 눈여겨 볼만

글|박연숙(본지기자)

서울 시 종로구 연건동에 위치한 서울대병원 내에는 조금 특별
한 박물관이 있다. 우리나라에 근대 의학이 도입된 이후
사용되었던 각종 의료기기를, 한국 의학 관련 사료, 병원사 관련 자료 등이 사진, 영상과 함께 전시
되어 있는 의학박물관이 그곳이다.

전시실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뉜다. 근대기 서양의학의 도입부터 비약적인 발전이 이루어진 현대
까지 우리나라 의학 발전사를 한눈에 볼 수 있는 병원사 전시실과, 우리나라 의학 도입 이후 의료가

결핵협회가 의학박물관에 기증한 문화자료



사 속의 결핵



일제시대 도시 빈두리와 토막으로 가난하고 주거환경의 상정이다.



토막의 내부구조

우리 속담에 '폐병환자 피하듯 한다'는 말이 있다. 그만큼 결핵은 전염력이 매우 높은 질병이라는 뜻이다. 조선시대 의서 「향약집성방」에서도 주위에 이 병에 걸린 사람이 있으면 우선 다른 곳으로 피할 것을 권하고 있다.

결핵은 기원전 4천년 이전에도 존재했지만, 역사상 결핵이 가장 크게 유행한 것은 19세기 산업혁명 이후이다. 당시 농촌을 떠나 공경지대로 물러든 노동자들은 울퉁한 작업장, 비위생적인 주거환경 속에서 열악 부족과 장시간 노동에 시달려야 했고 이에 따라 결핵이 널리 유행하였다.

일제강점기 산업화가 진행되며 1930년대 우리나라에서도 투베르쿨린 반응 양성률이 50%를 웃돌았다. 특히 1936년 조선총독부의 추정에 의하면, 당시 우리나라에는 약 40만명의 결핵환자가 있었고 그 중 4만명이 매년 결핵으로 사망하였다고 한다. 따라서 노동력이 가장 왕성한 20대에 주로 많이 걸리는 결핵은 국가적 차원에서 볼 때 '명국병'이라고 할 만하였다.

식민지하에서의 비참한 산업화와 함께 청결하기 시작하여 이른바 '근대병'의 상정이 된 결핵은 이후 새로운 화학요법의 도입과 외과적 수술의 발달, 전 국가적인 결핵예방사업과 보건소 사업, 학교 및 사업장의 집단검진을 통한 조기발견 등의 결과로 1965년에는 유행률이

결핵의 문화적 이미지

결핵은 인류 역사에서 가장 오래된 질병 중 하나이다. 고대 그리스, 로마, 중국 등에서도 결핵에 대한 기록이 남아 있다. 조선시대에도 '결핵'이라는 용어가 사용되었다. 이 시대의 문화적 이미지는 주로 문인이나 지식인의 이미지와 연결되어 있다.

이 시대의 결핵 환자는 주로 문인이나 지식인이었다. 그들은 문학을 통해 자신의 고통을 표현하고, 이를 통해 사회적 지위를 유지하려 하였다. 결핵은 '문인의 병'으로 여겨졌으며, 이는 당시의 문화적 분위기를 반영하고 있다.

결핵은 당시의 문화적 이미지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문인들은 결핵을 통해 자신의 고통을 표현하고, 이를 통해 사회적 지위를 유지하려 하였다. 결핵은 '문인의 병'으로 여겨졌으며, 이는 당시의 문화적 분위기를 반영하고 있다.



의학박물관 전경.
건물 자체가 문화재로 지정되어 있다.



결핵협회의 역대실 등 기증자료

관람안내 | Info

의학박물관은 관람질서 유지와 유물 훼손방지를 위해 단체관람 예약제를 실시하고 있다. 단체관람을 원하는 유치원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단체는 사전 예약을 통해 관람할 수 있다.

- 신청방법 : 관람희망일 5일전까지 예약
- 이용시간 :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10:00 ~ 12:00, 14:00 ~ 17:00
토요일 10:00 ~ 12:00(일요일과 공휴일, 근로자의 날, 개원기념일(10.15)은 쉽니다.)

기들과 현대의학의 혁신적인 기구들이 전시되어 있는 의로기구 전시실, 인체해부 단면, 심장의 모형과 실제표본 등을 전시해 놓고 간단한 의로기구들을 직접 체험해 볼 수 있도록 한 인체체험 전시실 등이다.

이밖에 고 기창덕 선생이 기증한 9천여 권의 「조선의보」를 전시해놓은 사료실이 있다. 1946년 12월부터 1949년 5월(제3권 제2호 통권 15호)까지 발행된 조선의보는 미군정기의 의로계 실상과 의학계의 새로운 학문적 경향이 의로계 주요 인사들의 눈을 통하여 직접적, 종합적으로 표출되어 있는 사료로 우리나라 의학 역사에 귀중한 자료가 되고 있다.

눈여겨 볼 또 하나의 전시실이 바로 '결핵특별전시관'이다. 지난 2003년 대한결핵협회 창립 50주년을 맞아 특별전시를 실시하면서 기증한 물품 혹은 자료들로 구성되었는데 여기에는 결핵과 관련된 다양한 자료 및 검진, 의로기들이 전시되어 있으며 결핵문학과 관련된 소중한 자료들도 눈길을 끈다. †